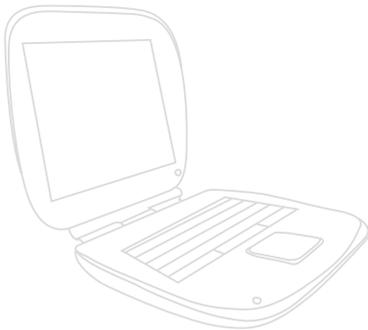




본지 김한웅 부장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어려움 벗어날 수 없다



“복(伏) 대목경기 이후에는 kg당 800원대 이하까지 폭락할 수도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정보센타는 말복(末伏) 이후의 육계경기에 대해 이 같은 전망을 내놓았다. 그러나 농경연의 이러한 관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육계 관련인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미 오래전부터 육계가격폭락은 예견돼 오던 사안이며 그 시점이 북경기를 지난 직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러한 상황이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상당기간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는 대목이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육계업계의 불황의 전초가 된 것은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03년 AI로 인한 대란이후 상당기간 육계업계는 호황을 구가해 왔다. 이 과정에서 무리하게 종계입식이 이루어졌고 종계 품귀현상으로 공급시장이 왜곡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2004년 당시 걱정 종계마릿수는 약 500만수로 추정했으나 지금 현재는 준용육계포함 630만수로 약 130만수 정도가 적정 마릿수를 초과, 입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기존 원종계 농장의 입식확대는 물론이고 새롭게 원종계 사업에 진출하는 업체까지 나타나게 된 것이다.

원종계 입식현황도 쿼터제가 실시됐던 2003년 9만4천수에서 2006년 14만1천600수가 입식됐으며, 올 상반기에만 7만3천100수가 입식돼 전년도 상반기 입식량을 이미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2003년도 고병원성 AI 발생당시 냉동 비축으로 인한 학습효과를 톡톡히 본 일부 유통업체들이 2006년 AI 발생당시 무리하게 냉동 비축을 시도한 것도 육계업계 경



기를 구렁텅이로 몰아간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이들 물량은 육계가격의 반등을 시도할 때마다 번번이 발목을 잡는 형태로 나타났고 결국은 육계시세가 반쪽 나는 결과로 이어졌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부터다. 이미 병아리 가격은 수당 100원대를 맴돌고 있고 당분간은 이러한 현상을 벗어나기에는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이는 육계가격도 마찬가지다. 농경연 농업관측정보센타는 북경기 이후 육계가격이 kg당 800백원대를 밀돌 것으로 전망했다고는 하지만 그 이상으로 폭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특히 계열화 업체의 경우 상반기에만 상당 수회사들이 수십억원에서 100억원대에 가까운 손실을 입고 있다.

이 시점에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지 않는다면 2003년도부터 2004년도 초까지 발생했던 계열화 업체와 농가들의 연쇄부도 사태가 재연되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다.

현재로서는 정책당국도 업계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는 판단으로 이번 난국타개에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결국 업계 자체에서 먼저 어려움을 벗어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수급조절에서부터 닭고기 판매를 늘리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조금씩 양보하고 상생의 길을 찾는 것만이 육계 및 닭고기 업계의 발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